

美 쇠고기 사태 해법 '자율규제'의 한계

'30개월 이상 폐기·반송' 미지수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해법을 민간주도의 자율규제 과정을 밟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단 미국 수출업체가 수출 쇠고기에 월령을 표시하고, 한국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가 각각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안 들여오겠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뒤, 각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는 쇠고기 수출입 자율규제에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 가능성=일단 국제무역기구(WTO)가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자유무역 취지에 반한다며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간업체들 사이의 결의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검역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실행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의 자율결의 이행 상황을 상대 측에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양국 정부가 어떻게든 자율규제에 연관되게 만들어 향후 자율규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량 및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학수 농식품부 제1차관은 "일단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만큼, 미국 역시 업계의

자율 결의 내용이라도 정부 측이 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할 것"이라며 "통보 방식은 구두(말)든 서면이든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위반 대응책=자율규제가 성사될 경우, 관건은 자율규제 위반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어떤 방식으로 자율 규제에 실효성,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율규제 이후 만약 30개월 구분 라벨링(표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정부가 이를 임의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구분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수입업체가 자율 결의문 등에서 "검

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구분 표시가 없는 쇠고기가 나오면 이를 전량 정부가 폐기 또는 반송해도 이의를 제기하고 않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가 실제로 수입위생조건에 없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라벨링 없는 쇠고기를 들여온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들 물량의 검역 이후 유통 과정을 추적하거나, 이후 해당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물량에 대해 2주일이 넘게 걸리는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쇠고기 제한' 시각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국 수출업체 시스템상 30개월 미만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에서다.

한국수입업협회(가칭)의 임시회장 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5일 미국내에서 월령 표시가 제대로 필지에 대한 의문 제기 등에 대해 "미

국 수출업체들이 월령 표시를 한다고 했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의 말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수입 자율규제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업체 관계자는 "문제는 도축할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치아 수 등으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고, 서류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협상과 유사한 해결책 나올 것"

버시바우 대사, 강재섭 대표 예방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형식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재협상과 같은 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패키지 정책에

는 여러 다양한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 두 선진국 사이의 협정인만큼 협정 자체를 재협상하기는 어렵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한국인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양국 정부는 어떻

게 해결할 지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민간 업계 사이의 약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양 정부가 부단한 노력중"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 입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쇠고기 파동으로 'MB노믹스' 표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5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MB노믹스'의 간격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보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 공기업 개혁도 쇠고기에 밀려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

안, 금산분리 완화방안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도 예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고유가 해결을 위해 시급한 원자력 정책도 미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개혁방안은 쇠고기 파동으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예초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지난달 중

순이나 말게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달 초로 한번 미뤄다가 다시 이달 말 이후로 연기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운하 논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거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도 쇠고기 논란과 서민대책에 밀려 연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美측에 쇠고기 '신중 언행' 당부

정부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해 미국측 인사들의 발언이 자칫 한국에 반미감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교경로를 통

해 미국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유명한 외

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언론에 밝힌 발언으로 인해 국내 정치권이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어제(4일) 미 대사관측에 설명했다"면서 "핵심인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고교육학) featuring various educational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고교육학)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생활안내 광고' (Life Guide Advertisement).

Advertisement for 'MDGOSI' (무등고시학원) featuring a grid of subjects and exam preparation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고교육학) featuring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School) and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New Administrative Exam School).

Advertisement for 'MDGOSI' (무등고시학원) featuring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Public Brokerage Specialist Real Estate Management Specialist) and exam preparation information.